

## 핵의학 전문기사 제도 : 대한핵의학회의 입장

서울대학교의과대학 핵의학교실

### 정 준 기

현재 전국의 110여 병원에서 방사성동위원소를 환자 진료에 사용하고 있으며, 400여명의 의료기사가 핵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핵의학 전문기사를 교육시키는 전담 기관이나 제도가 없어, 보건대학의 방사선과나 임상병리과에서 일부 교육시키고, 이들 졸업생이 핵의학과에 근무하면서 필요에 따라 현장교육을 시키고 있는 상태이다.

핵의학 진료는 다른 분야보다도 환자의 상태, 조건에 따라 검사방법이나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우리 나라 핵의학 기사 교육에서 전담 교육기관이나 전문기사 제도가 없다는 사실은 핵의학 진료에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현장 교육도 통일된 내용과 과정을 가져야 한다. 즉 일정한 수준의 교육과정이 필요하고 이를 인정하여 주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우리 나라에서 핵의학 전문기사제도의 정착을 위하여서는 먼저 보건대학에서 핵의학기술만을 교육시키는 전문학과의 설립이 필수적이다. 우리 나라에 현재 21개의 보건대학이 있고 연간 3,500명의 방사선기사와 2,000명의 임상병리기사가 배출되고 있다. 이들 중 핵의학전문기사의 수요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모든 보건대학에 핵의학기술학과를 설립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이고, 몇 개의 진취적인 대학에 설립을 추진할 수가 있으며 차선의 방법으로 기존의 방사선과나 임상병리과에서 핵의학을 복수전공으로 교육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국제원자력위원회(IAEA)에서는 개발도상국에서 핵의학기술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핵의학기사를 위한 원거리교육”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호주의 시드니대학의 중심으로 시작하여 핵물리학, 방사약학, 핵영상법을 중심으로

1차 교재를 완성하여 현재 인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에서 예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중국과 방글라데시 및 남아메리카에서 자국어로 교재를 번역하여 핵의학기술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호응에 힘입어 국제원자력위원회에서는 SPECT, 생물학적 검사를 중심으로한 2차 교재를 준비 중에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이 국제원자력위원회의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제원자력위원회의 “핵의학기사 원거리교육”의 교재는 방대하고 영어로 기술되어 있으므로 한글로의 번역이 선결문제이다. 올 여름 대한핵의학회와 대한핵의학기술학회는 교재의 번역을 1차 사업으로 결정하여 현재 대부분의 1차 교재가 한글로 번역한 상태이고, 곧 교재를 출판하여 원거리교육에 대비할 예정이다. 2차 교재가 완성되면 바로 번역할 예정이다. 국제원자력위원회의 “핵의학기사 원거리교육” 프로젝트는 2년간의 교육 기간이 필요하다. 올해 12월 초에 국제원자력위원회의 전문가와 함께 국내에서 워크샵을 가진 후 내년부터 프로젝트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6개의 대학병원에서 약 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작하고, 제반되어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한 후 6개월 뒤 다른 병원에 확대할 예정이다. 개인별 독자적인 학습 이외에도 병원별 합동교육이 필요하다. 핵의학과 기사장과 수석기사가 합동교육 및 실습교육을 지도하고, 주기적으로 전체교육과 문제점을 해결하는 워크샵을 가질 예정이다(그림 1). 우리 나라에 국제원자력위원회 프로젝트의 Advisory Board Member가 있고 대한핵의학기술학회 회장이 National Coordinator가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다. 각 병원의 핵의학 과장은 Supervisor가 되고 기사장과 수석기사는 Expert가 되어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그림 2).

# 시간 Schedule (안)

1999. 7월

- 대한핵의학기술학회 Workshop
- 번역(1차 교재)

1999. 11월

IAEA Workshop

1999. 12월

교육시작 (1부)

2000. 6월

교육시작 (2부)

2000. 7월

-번역(2차 교재)

2000. 12월

Workshop

2001. 12월

평가 (1부)

Workshop

2002. 6월

평가 (2부)

Fig.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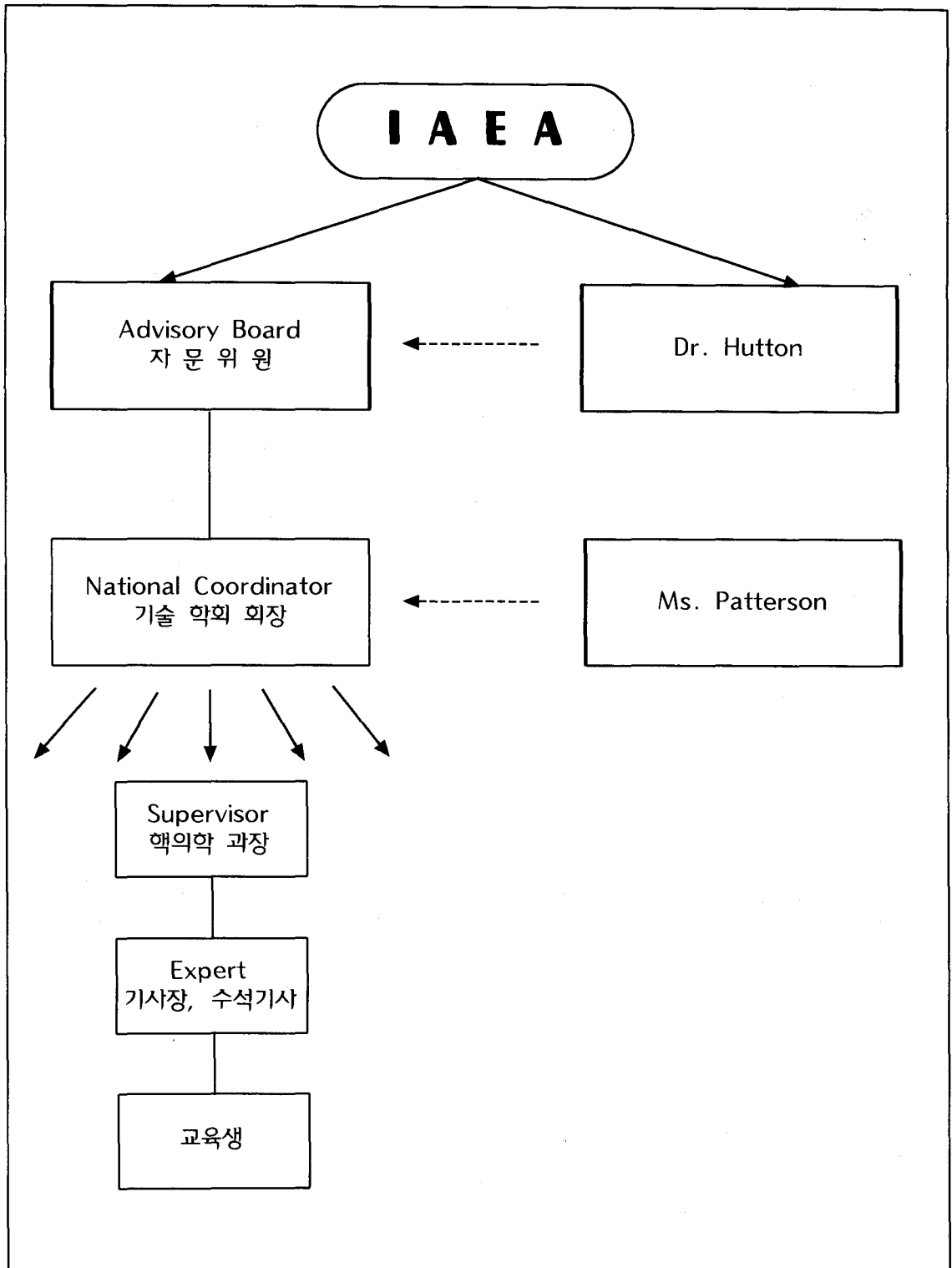


Fig. 2.

2년간의 교육 후 평가를 하여, 국제원자력위원회와 대한핵의학회의 인증서가 발부된다. 원하는 사람은 호주의 시드니대학이 주관하는 소정의 시험을 보고 통과하면 이 대학 졸업증을 수여받게 된다. 국내에서는 국제원자력위원회의 프로젝트와 병행하여 대한핵의학회, 대한핵의학기술학회 주관으로 in vitro 분야의 교육내용도 개발할 예정이다. 이러한 인증서 및 교육제도를 바탕으로 장차 우리나라에서 핵의학 전문기사제도를 개설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우리 나라에서 체계적인 핵의학기사 교육을 수행하면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인가? 우선 핵의학진료에서 기사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당연히 국내 핵의학

진료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확신한다. 또한 보건대학에서 핵의학과를 설립하는 자극제가 되고 나아가 법적인 핵의학기사제도의 모태로 작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훌륭한 핵의학기술 교육은 핵의학 기술 개발, 나아가 새로운 핵의학 기법 개발로 이어져 핵의학 발전에 일조를 할 것이다.

대한핵의학회는 우리나라에 핵의학기사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4년 전 핵의학전문 제도를 우리나라에 신설할 때와 마찬가지로 핵의학에 관계되는 모든 사람이 합심하여 정열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면 핵의학기사제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